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초등학생 저학년 (2학년)

제 목 무화과 향기를 전해주는 우체국

우리집은 무화과 농장을 한다.
여름이 되면 바깥간식 무화과가 하나씩 생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무화과를 조심 조심
따러간다. 무화과는 세상에 만지면 모양이 눌
리기도 하고 상하기 때문이다.
나도 방학때는 창고에가서 아빠 일을 도와드리다.
포장상자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무화과를 예뻐게
담아서 저들에게 무시를 재깁는다.
이렇게 좋은 무화과만 골라서 엄마를 태백산박스에
포장을 한다. 우연히 포장에 끝나면 우체국으로
가서 가서 각별 지켜 지원분께
(비밀로게 잘 부탁드려요.)
하고 태백산을 보낸다.



2026

접수번호

우체국 문화전

제34회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글짓기 대회

응모 구분 초등학생 저학년(2학년)

제 목 무화과 향기를 전해주는 우체국

이렇게 보면 나면 몇몇의 손길이 맛있게 다져
사진과 함께 글을 남겨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글들을 보면 원가족의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그때 알았다. 우체국은 상자만 보내는
곳이 아니었다. 아빠의 맘도, 연마의 정서도,
우리가족의 웃음도, 무화과향기와 함께 보내주는
곳이었다. 올 여름에도 우리집 무화과는
우체국을 타고 전국으로 여행을 떠날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 우체국이 참 고맙다.
우체국은 태백산을 보내는 곳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서와 행복을 전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